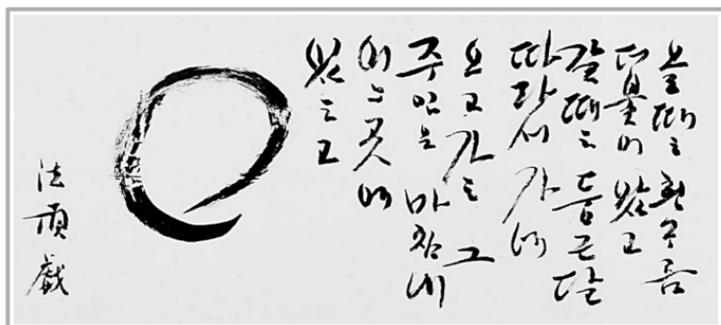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둬거둬 개선하고 심화시켜 가는 명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길이다.

<법정스님>

사진 : 불일암 뜨락 / 박연희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1 / 4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	4	부처님 전상서 (1)
산골만화 / 정태경	11	새 벽
시심청심 / 최용광	12	자 유
사색의 뜰 / 이상옥	14	어느 날 연주대에서
맑고 온 편지 / 박요안나	17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듬	18	3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22	서울모임
	27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30	4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1년 4월 1일 발행 / 통권 194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석현장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원 /
인쇄처 능인전산품 /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17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부처님 전상서 (1)

비구 법정이 부처님께 올립니다!
한국 불교도의 한사람으로서 엮드려 참회(懺悔)를 드립니다.

法頂 (스님)

이 글은 법정스님께서 30대 초반인 1964년 10월 11, 18, 25일 3회에 걸쳐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에 기고한 <부처님 前上書>를 풀어 옮긴 것이다. 1962년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였지만, 당시의 한국불교는 비구-대처 정화분규 끝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편집자 주 -

제 1신 : 1964년 10월 11일
(음력 9월 6일)

회(心懷)를 당신에게라도 목소리
하지 않고는 답답해 배기어낼
수가 없습니다.

머리말[序章]

부처님!
아무래도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다. 깊은 산[深山]에 수목처럼
덤덤히 서서 한세상 없는 듯이
살려고 했는데, 무심(無心)한 바
위라도 되어 병어리처럼 묵묵히
지내려했는데, 이렇게 또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울적한 심

부처님!
먼저 저는 당신 앞에 당신을 욕
되게 하고 있는 오늘 한국 불교
도의 한사람으로서 엮드려 참회
(懺悔)를 드립니다. 당신의 제자
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의 이름을 팔아 무위도식
(無爲徒食)하고 있다는 처지에서.
오늘 우리들 주변이 이처럼 혼

탁하고 살벌한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연유(緣由)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국이라는 이 혈벗은 땅덩이 안에서 자비하신 당신의 가르침은 이미 먼 나라로 망명해버린 지 오래 되었고, 빈 절간만 남아 있다는 말이 떠돕니다. 그리고 이른바 당신의 제자라는 이름은 마치 투쟁견고(鬪爭堅固) 시대의 표본(標本)같은 무리[群像]들로 채워져 있다고도 합니다.

당신의 가사와 발우를 가진 제자들이 오늘날 이 겨레로부터 마치 타락된 정치가들처럼 불신을 받고 있는 점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과 수확(收穫)의 계절이라고들 하는데, 우리에게는 결실할 밀천도 거두어들이기 만한 열매도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불모(不毛)의 황무지에 밝은 씨앗이라도 뿌려졌으면 하

는 간절한 소망에서, 저는 이제 제 주변을 살살이 뒤져 헤치는 작업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말하자면,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앓고 있는 자신의 질환에 대한 진단 같은 작업을 -.

교육에 관하여[教育의 章]

부처님!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깃발[旗幟] 아래에서는 걸핏하면 3대 사업이 어떻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그 일은 시급한 저희들의 과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긴요한 것이 당신의 혜명(慧命)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 집안이기에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껏 입으로만 축문처럼 외워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절[寺院]에서 벌리고 있는 강당이나 선방이라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의 뜻을 이어받을 눈 밝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한낱 도량 장엄(道場莊嚴) 정도로 차려 놓은 것에 불과한 인상들입니다.

그것은 실로 ‘교육’이라는 말조차 무색하리만큼 전(前)근대적인 유물로서, 박물관 진열장으로서나 들어가야 할 쓸모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타당한 방법론도 구체적인 계획성도 없습니다. 사제 교육의 기초기관인 강당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그 방법이란 철저하게 훈화(訓話)적인 그러니까 한문서당에서 상투 틀고 가르치던 그 습속을 소중하게, 너무나 소중하게 물려받고 있습니다.

한 강사가 여러 클래스(class)를 전담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 전체 학인을 명령 한 마디에 통솔하기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강사 자신의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실조(失調), 그리고 강의를 받은 사람들의 섭취할 건덕지가 얼마나 있을는

지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수(履歷) 과목이라는 것이 조선 중엽에 비롯된 것이라는데, 지금의 형편이나 피(被)교육자의 지능 따위는 전혀 무시하고 또 시대적인 요구도 아랑곳없이 하나의 타성으로서 비판 없이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나마 얼마 동안에 배워 마친다는 정해진 기간도 없이 - 이처럼 무모한 <교육?>이 어느 다른 사회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가르치는 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인지, 흥미한 오늘의 현실에 <종교인>으로서 어떠한 사명을 해야 할 것인지를, 풍문(風聞)으로나마 가르치고 배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깨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훈고적인 문자의 전달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현대라는 시점에서 소위 일체증생의 길잡이가 될 인재를 기르기 위한 종교교육이라면, 생

동(生動)할 수 있는 사명감을 불러 일으켜주는 것도 철학이 두뇌의 영역이라면, 종교는 심장의 영역일 것입니다. 메마른 심장으로서는 자신은 고사하고 어떻게 이웃을 울려줄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신의 제자 된 사람이 당신의 가르침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비좁은 자기 나름의 소견에만 사로잡힌 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선방이란 곳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본래 의지(意志)를 곡해한 듯 전혀 당신의 가르침에 대한 기초 교육도 없는 이들을 함부로 받아들여 선 자체에 대한 오해마저 초래케 하는 수가 흔히 있습니다.

선(禪)이 수행의 구경(究竟) 목적이지 아니고, 그것이 깨달음(覺)으로 向한 한낱 방편일진대, 보다 탄력 있는 시야쯤은 갖추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첫 문에 들어선 초발심자(初發心者)에게 있어서는 -

<막존지해(莫存知解)>라는 말

과 ‘배우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과는 그 궤(軌)가 분명히 다른 줄 압니다. 흔히 참선자가 선에 <참(參)>하기보다는 선에 <착(着)>하기가 일쑤이고, 따라서 종교인으로서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벽(壁) 속에 스스로를 가두면서도, 그것으로서 오히려 자기위안[自樂]을 삼는 것은 모두 이러한 결합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만약 오늘 이 사회에 계신다더라도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무모한 방법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어설픈 화신(化身)들

이러한 교육 이전의 불합리성 때문에 이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市井]에 있는 절간에 가면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젊은 우리 사미승들이 그늘진 표

정으로 2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목격합니다. 절에서는 승복[緇衣]을 입고 절문 밖에서는 세속 옷[俗衣]을 입는 - 마치 낮과 밤을 사이하여 치장을 달리하는 박쥐라는 동물처럼. 부처님 앞에서 목탁을 치던 한낮의 손이 해가 기울면 학원[學館]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일념에서 이처럼 어설픈 향학[向學]의 욕구를 절간에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합니다.

또 그들 학비[學資]의 출구[出路]란 것이 대개 뚝뚝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3보에 회사한 정재[淨財]가 잘못 유실될 수도 있을 것이며, <낮을 익혀 둔> 신도들이 떨어뜨리고 간 지폐에 의존하는 수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도가 돈을 쥐어 줄 때 그것으로서 세속의 업[業]을 익히라고 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수할 수 없는 조업[造業]으로 그 건전한 회향[廻向]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잘못 하면 주는 편이나 받는 편이 함

께 지옥에 떨어지는 업[業]만 익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모처럼 어린 마음으로 구도[求道]의 문안에 들어섰던 그들이 도업[道業; 佛道 修行]을 이루기에 앞서 다시 세속을 기웃거리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산사에서 간신히 이수과정을 마친 학인들이 불교 외부 학문[外典]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하산한 뒤로는 거의가 돌아오지 않는 승려[不歸의 僧]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기대해야 할 젊은 세대 사이에 -.

이와 같은 유쾌하지 못한 현상이 어찌 그들만의 탓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언제까지고 모른 채 하고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너무나 잘못된

부처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불교계에는 ‘급조 승려[急造僧]’이라는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낱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승려라면 일반의 지도적인 입장에 서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질 여부는 고사하고 일정한 수업도 거치지 않고 활짝 열려진 문으로 들어오기가 바빠게 삭발과 의상 교체가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로서의 품위나 처신이 말할 수 없이 진흙탕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낙후된 경제사회에서 부도가 나버린 공(空)수표처럼 -.

더구나 이들이 절을 주관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그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들이 언제 수도(修道) 비슷한 거라도 치를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출 이전의 세속적인 행동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신문의 사회면에서는 가끔 ‘사이비 승려’라

는 기사거리와 더불어 세상의 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어떤 절에서는 처음 입산하려는 사람의 학력이 대학 출신이거나 좀 머리가 큰 사람이면 더 물을 것도 없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슨 자랑스러운 가풍이나 되는 것처럼 -.

거절의 이유인 즉 “콧대가 세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다루기가 벅차서일 것입니다. 우선 지적인 수준이 이쪽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하나의 열등의식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한 반증으로서 인간적인 기본 교양도 없는 만만한 연소자는, 그나마 노동력이 필요할 때 틈타서 받고 있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구도자로서의 자질과 미래상이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우매한 고집들이 수도장을 경영하고 있는 동안, 당

신의 가르침인 한국불교의 표정은 갈수록 암담할 수밖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낸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오늘 우리사회에서는 너무나 비대하게 설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

단의 의결기관인 중앙총회에서 몇 군데 계획적인 수도장으로 총림을 두기로 했다지만, 이러한 무질서가 건재하고 있는 소지(素地)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

2011년도 ‘맑고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사업’안내

집안의 몰락으로 16살에 몸 약한 신랑에게 팔려간 운명. 고된 시집살이 끝에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나온 그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 한성 기생이 된 “眞香”.

뛰어난 미모에 가무와 궁중무를 배워 서울의 권번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잡지에 수필을 발표할 정도로 시와 글, 글씨, 그림에도 재능이 뛰어난 기생. 스물세 살 때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 신지식 여성이 되었지만, 다시 기생의 길을 택한 그녀는 시인 백석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까지 이별은 없을 것”

하지만 백석의 집안에서 둘을 갈라놓기 위해 서둘러 다른 여자와 결혼을 시키게 된다. 결혼식날 밤 집을 빠져 나온 백석은 영한에게 달려와 만주로 달아나자고 설득하지만 영한이 거절하자 백석은 1939년 만주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이야……. 평생 백석을 그리워한 김영한은 자신의 연인 백석을 기리는 “백석문학상”을 재정하고 평생 동안 일궈온 대원각을 법정스님께 시주한 후 길상화라는 법명을 받게 된다.

길상화 보살과 법정스님께서 몸소 실천한 무소유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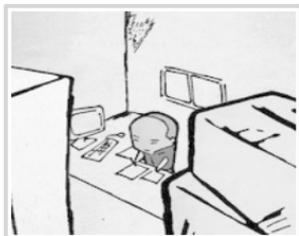
그 정신을 고이 받들어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사업’을 시작하지 어언 18년째. 올해도 전국 30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4월 9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 태 경



잠에서 깨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넣는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다.



참고 겸 공부방은 냉골이다.
장작을 아껴야 하기에
하루에 한 번만 불을 지핀다.



그래도 이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
방은 아직 춥지만
금방 따뜻해질 것이고
이 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은 춥지 않다.

새벽을 맞이한 하루는
그것으로 보람된 하루가 되는 것 같다.

굴뚝의 연기는
어두운 새벽하늘에
강이 되어 흐른다.





(詩心清心)

자 유

최 용 광 (시인, 교사)

하얀 눈 내린 날
말은 웃음 하나 남기고
법정을 자유로 돌아갔다.

소유한 게 없으니
버릴 것도 없으련만
행여
내 것이 남아 있다면
아낌없이 주라했다.

부처님 말씀 하나
모르고 살까 봐
가장 쉬운 언어로
범문 하시고
그 말씀이
또
구섭일지 몰라 아파했던 분

난
길상사 뒤뜰에서
지난 겨울 지인들과 그 분을 만났다.
가치런히 참장한 모습에선
향내가 났다.



원고 투고 바랍니다.

살면서 문득문득 느껴지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삶의 지혜가 되는 글, 책을 읽으며 발견한 가슴 뭉클한 글귀, 깨달음을 준 문구나 본인의 생각들 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 살면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 각 자원봉사활동을 함께했던 분들의 속마음을 글로 나누어 주세요.
자연의 소중한미나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위한 노력과 실천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십시오.

● 원고 보내주실 곳 : clean94@hanmail.net 또는 사무국으로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소식지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속세를 떠났어도
서러운 세월
결망 한 구석에 남았을테지만
범정을 향기롭게 웃었다.

버리려 얻는 자유
그래서 그 분을 늘 자유로왔을게다.

시린 겨울 보내고
봄을 남기고 떠났다.
하얀 눈 안고
활활
자유로 떠났다.

중생들의 욕망
바람에 가득메고
많은 세상 오기를 서원하며
시공의 세계를 벗어
자유로 떠났다.



어느 날 연주대에서

이 상 옥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이상옥(李相沃) : 영문학자이며 서울대학교 교수, 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한 후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다. 이 글은 신구문화사 간행 『가을 봄 여름 없이』 중 〈어느 날 연주대에서〉 전문이다. 이 글은 작가의 허락을 얻어 여기에 올린다.

지난 8월 초순 어느 날 관악산 연주대(戀主臺)에 올라갔다. 마침 날이 너무 좋아서 집에 처박혀 있기 아까워 무작정 마실 물만 챙긴 후에 집을 나섰던 것이다. 오랜만에 찾아간 관측 향교 쪽 계곡에는 주중인데도 사람들이 많았다. 개울물이 고인 곳에서는 아이들이 풍덩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어느새 끝물로 접어든 누리장나무 꽃은 피약별을 찍며 여느 때보다 강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고, 여러 마리의 청람색 제비나비들이 마치 그 진한 향내에 도취된 듯 득실거리고 있었다.

워낙 예정에 없이 열한 시가 되어야 나선 길이라 연주사에 이르니 어느새 오후 한시가 지났고

갑자기 시장기가 들었다. 서둘러 하산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절 경내로 들어서니 문득 등산객 차림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대체 무슨 줄일까 궁금히 여긴 것도 잠시였을 뿐, 저게 필경 점심을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의 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주사에서는 일반 등산객들에게 점심 공양을 한다는 소문을 오래 전에 들은 기억이 났던 것이다.

마침 잘 되었구나 싶어 나도 그 줄에 가서 섰다. 식당 안에서는 수십 명이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기에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아마, 절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 하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자발적인 헌금을 유도하는 글귀가 붙어 있는 것도 보였다. 그러나 아무도 돈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돈을 내고 먹으리라 걱정하고 얼마를 낼 것이냐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실비로 2,000원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5,000원? 아니야, 내는 김에 다른 사람들 몫까지 합쳐서 10,000원을 낼까 보다. 이렇게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나는 주방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 앞에 대여섯 사람이 남았을 무렵 나는 그만 깜짝 놀라며 휙 돌아서서 식당을 걸어 나오고 말았다.

공짜 밥을 얻어먹기가 겸연쩍기 때문이 아니었다. 밥값으로 얼마를 낼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괴로웠기 때문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오래 전에 연주사에서 공짜 점심을 제공한다는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함께 산행을 하고 있던 친구들 앞에서 그 무료 공양을 비난했던 기억이 별안간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절에서 중생을 위해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하니 그 뜻은 좋다. 그러나 산꼭대기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하자면, 취사하네 설거지하네, 결국은 계곡을 오염하지 않을까? 불공을 드리려고 찾아온 신도가 아닌 수많은 등산객들에게까지 무료로 점심을 먹이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공짜라면 양젓물이라도 마신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 하지 않더냐? 더욱이 한가로이 등산이나 하는 사람들이라면 끼니 걱정은커녕 오히려 몸에 낀 군살을 더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부처님의 자비니 중생의 제도니 하는 명분으로 이런 공짜 점심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이런 요지로 내가 떠들어대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나는 입바른 소리를 했던 것을 후회했지만 어차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제 와서 참회하는 뜻으로 돈을 좀 많이 내고 점심을 먹는다고 해야 내가 비난했던 일을 호도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 공양으로 인해 계곡이 실제로 얼마나 더 더럽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염을 이유로 무료 공양에 대해 탈을 잡았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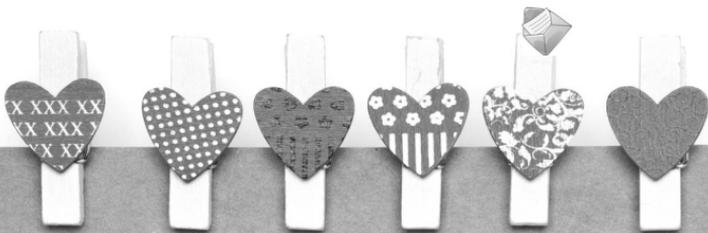
람이 그 오염에 동참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때 그 비난을 들었던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니 슬그머니 한 그릇 얻어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리도 만무했다. 하지만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늘 그렇듯이 내 자신이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속임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혼자 뇌까리면서 법당 앞으로 나오니 선전 구호를 적은 현수막이 한 장 눈에 들어왔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국립공원의 일부인 사패산을 뚫고 나가도록 설계된 데 대한 불교계의 반대를 진정하는 내용이었다.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스님들의 뜻에 나도 어느 정도 동조하는 편이었지만, 그 현수막을 보는 즉시 “그렇다면 이 관악산 계곡의 오염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사패산의 터널 공사는 안 된다면서 관악산의 계곡 오염은 괜찮다면 그건 자가당착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아울러 오염을 감수하

면서 공짜 공양이라는 보시를 하느니 차라리 그 경비를 다른 사회사업에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서라. 스님들의 높은 뜻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네 자신의 언행과 처신이나 바로 하라.” 뭐, 이렇게 나무라는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듯했다. 돌아서서 하산하는데 연주샘 계곡 길에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나는 절 뒤쪽에 만개한 사위질빵이며 관악사 터 주변 여기저기에 핀 누린내풀, 노랑물봉선 및 등골나물 등을 한참씩 곰곰이 들여다보았고, 드물게 눈에 띄는 배초향이며 잔대며 탐꽃 그리고 막 붙게 물들기 시작하는 참회나무 열매까지 감상하면서 내려왔다. 어차피 들꽃이나 찾아보겠다고 오래 만에 오른 관악산 길이 아니었더냐. 그 길에서 이 정도의 보답을 받았는데, 그까짓 허기쯤이야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으랴. (2003)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보게 될 고3 박요안나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지원해주신 장학금과 따뜻한 관심 덕분에 학교생활
은 더욱 밝고 편안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서 등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셨던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항상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으로 1년 동안 어머니께서 학비걱정을 한시름 놓은
것 같아 정말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매달 '맑고 향
기롭게, 소식지를 통해 법정스님의 글을 접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버리고 떠나기>의 한 구절인 '가난은 주어진 빈궁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와 그릇이 맞도록 자기 몫의 삶을 이루려는 선
택된 청빈일 것이다.'라는 글을 읽고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출하고 맑은 가난이 무엇인지 깨닫기엔 아직은 제가 어리지만
청빈은 결코 약덕이 아니라 미덕이라는 말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고 있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법정스님과 '맑고 향기롭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3월 5일

박요안나 드림

묘희원(6일, 매월 첫째 일요일)

(활동 이야기 : 이응조 자원봉사자)

묘희원 3월 달 봉사활동은 지난달에 잘 띄운 메주로 맛장을 담그는 일과 감자와 채소를 심을 밭에 소똥 거름을 넣는 일을 하였습니다.

작업 중 옷에 묻어서 냄새가 났지만, 오랜만에 맡아보는 구수한 된장냄새와 소똥냄새는 작업하는 봉사자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새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거름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향기를 맡으며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향기로울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향기를 내뿜듯 또 그 향기를 그대로 인정하듯, 봉사자들은 처음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할 겁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로운 모습 그대로 풍겨나야 하며, 결국엔 맑고 향기로운 향기를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한 모든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진인선원(13일, 매월 둘째 일요일)

(활동 이야기 : 박지연 자원봉사자)

오전에는 메주를 씻는 노력봉사를

하였습니다.

다들 장화로 바꾸어 신고 신발들을 한 쪽에 놓았습니다. 나란히 벗어놓은 십여 명의 신발을 보니 꼭 한 가족이 벗어 놓은 신발 같습니다.

메주를 씻어서 수레로 장독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붓습니다. 향아리 속에 들어간 메주가 참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식시간에는 이달에 생일을 맞이한 봉사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사자 간의 단합시간이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늘 변함없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울동과 민요놀이마당을 펼쳤습니다.

진인선원 뜰에는 새싹이 피워 오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 따뜻한 봄을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 **이순덕** : 정릉동에 사는 박00어르신은 장애가 있는 분이다. 최근 들어 통증이 심해져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상황에 집주인도 불편해 하는 것

같아, 임대주택을 신청했다고 하신다. 정00어르신은 몸이 많이 아픈데 감기까지 들어서 더 고생이다. 맑고에서 보내준 상품권으로 쌀을 샀다며 감사해 하셨다.

● **이현주**: 장위동에 사는 김00어르신 이 지난달 몸을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인데 최근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이 다. 박00어르신은 자신의 몸도 불편하면서 이웃에 사는 어린이들을 돌봐 준다고 한다. 엄마가 바빠서 어르신이 옆집 아이를 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밤에 일을 나간 부모 때문에 혼자 있는 아이를 재워주시기도 하신다. 외롭고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다.

● **임진성**: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고 봄이라 해도 춘설이 분분하고 날이 차갑다.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이 봄 감기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 빨리 회복이 되어 향기로운 봄을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찬희**: 일본에 지진이 나서 몹시 안타깝다. 말벗 어르신 중에 일본에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어 안부를 물으니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안심을 하였다.

서울시립수락양로원 (1, 2, 3, 5주 목요일)

(활동 이야기 : 홍선주 모둠장)

● **3월 3일**: 마스크처럼 작고 귀여운 김00할머니. 곱게 빗어 넘긴 머리 나지막한 목소리 나뭇 포스가 느껴진다. 두 달쯤 전 내 귀에 대고 작게 말씀 하셨다.

“나 노래 좀 가르쳐 줘”

“네, 할머니 얼마든지요 목요일 음악치료 시간에 꼭 나오세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그 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나오신다. 나오시기 전 방 정돈을 어찌나 깔끔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오늘도 할머니 “오동추야 날이 밝아~”를 부르신다. 틀리실까봐 “같이 불러줘”하고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신다. 노래도 할머니 눈망울처럼 또박또박 정확히 “할머니 이제 다른 노래도 도전해 볼까요!”

● **3월 10일**: 수락 양로원 천사! 우리는 장00할머니를 그렇게 부른다. 할머니 언제나 웃으시고, 언제나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신다. 음악치료시간에도 항상 일등으로 맨 앞자리에 앉으시곤

다른 어르신들이 오시면 여기 앉아 하시며 도와주신다.

처음 할머니를 뵈었을 땐 발음이 어눌하셔서 무슨 노래를 하시는 건지 가사를 도통 못 알아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따라 부르시는지 ‘목포의 눈물’은 할머니 18번이다.

지속적인 참여 덕분일까? 이젠 누가 들어도 가사가 들린다. 어르신들의 비웃음 대신 잘 불렀다는 격려의 박수 소리와 함성이 울린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 3월 17일 : “꿈보다 해몽이 좋다”를 입에 달고 사는 어르신, 최00할머니 까랑까랑 각쟁이 같은 목소리로 “no”라고 단호하게 거절의 말씀도 잘 하신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마음 여리고, 또 얼마나 귀여우신지, 노래 부르시면서 가사에 맞게 울동도 곁들이신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막대사탕이 주식이고, 밥이 부식일 정도로 사탕을 좋아하신단다. 할머니, 오래오래 춤도 추시면서 노래하시려면 사탕은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

서울노인복지센터(수요팀)

(활동 이야기 : 변윤정 모듬장)

● 3월 3일 : 오늘 수요팀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봉사자님이 계셨습니다.(오영희, 이영숙, 길운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3월이지만 아직까지 차가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윤영보, 변윤정, 장재향, 홍순애, 김문자, 신미영, 박봉래, 윤선재, 강영자, 강희출, 오영희, 이영숙, 길운자) 항상 밝은 얼굴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3월 17일 : 수요일 봉사팀은 원래 한 달에 한번. 첫째 수요일에만 봉사를 해왔는데, 여러 봉사자님들께서 3월부터 셋째 수요일에도 봉사를 하자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처음으로 셋째 수요일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봉사팀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이권복, 장재향, 김문자, 변윤정, 장기정, 이영숙, 강순애, 김현실, 김성애, 이영희, 강영자)앞으로 셋째 수요일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승가원(2, 3주 일요일)

(활동 이야기: 흥정근 봉사팀장)

● **3월 13일**: 일요일 아침 10명의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1:1 짝을 지어 토닥 토닥 안마와 율동 그리고 요가를 통하여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네이버 해피빈을 통하여 '승가원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사탕을 선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모금을 한 결과 네티즌의 많은 참여로 며칠 사이 20만3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사탕만 선물하기엔 조금 많은 금액이라 사탕, 과자, 음료수, 요플레, 두유를 구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 **3월 20일**: 봄비가 와서 아동들의 몸과 마음이 다운돼서 집중이 안 될 것 같았지만, 모두 열심히 잘 따라 해주었습니다. 아동들이 요가활동을 재미있고 즐겁게 잘 따라 해줘서 청소년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 학기 들어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하고자 연락 없이 봉사에 빠지는 학생들에게 몇 차례 경고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석이 잦은 학생은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중단시켰습니다. 봉사는 아동들과의 약속입니

다. 봉사자가 오지 않으면 짝꿍을 기다리던 아동들이 요가를 혼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섭섭해서 울기도 합니다. 새 학기 들어 새로운 봉사자도 들어 오고해서 이제는 둘째, 셋째 주 봉사자들이 100% 출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첫째 주에 해오던 봉사를 3월부터 둘째 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첫째 주가 청소년들 시험기간이 자주 겹쳐서입니다.

결석이웃 밑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활동 이야기: 최두리 모듬장)

● **3, 4일**: 지난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꽃샘추위가 와서 다시 춥다고 하지만 그래도 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꽃샘추위가 비닐 커튼 사이로 뽀뽀 들어와도 자원활동가들은 따뜻한 차로 몸을 녹여가며, 맑고 향기로운 조리장을 지켜주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10일**: 올해 첫 김치담기를 했습니다. 이맘때면 햇김치가 생각이 날 때입니다. 시장에는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게 없고 배추 가격도 이때쯤이 가장 비쌀 때입니다. 그래도 김치를 기



다리고 계절 결식이웃들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김치를 담가야겠지요. 차가운 날씨였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1망 12kg 기준으로 135망 배추 구입, 지원양 392가구 3kg씩, 지계의 집 190kg 지원)

● **17, 18일** : 봄소식을 알리는 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길상사에서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영춘화가 양지 바른 곳에 조금 피어 있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인가 봅니다. 모든이의 가슴에 따스함이 자리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총 392가구, 단체 1곳)

- 1째주 - 조개젓무침, 어묵볶음
- 2째주 - 김치
- 3째주 - 우영·연근조림, 오이무침, 콩설기
- 4째주 - 멸치볶음, 미역무침

● 결식후원금 2/1 ~ 2/28
16,570,500원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서울모임

본모임과 뜻을 함께 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직종 : 시민단체 활동가(사회복지, 환경활동, 회원관리, 편집, 기획)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신심과 본모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좋은 역량이 있는 분으로 사회복지, 시민단체 활동가, 환경보호활동에 관심 있는 분, 컴퓨터 활용(홈페이지 관리, 운영), 레크리에이션(회원 교류), 손재주(pop, 꾸미기, 만들기) 등 대인관계가 좋고, 여러 회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분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모임 회원이거나, 자원봉사자, 길상사 신도중 의욕 있는 청년이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뜻이 있는 분이라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서류 검토 후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 근무시간 : 하절기(4월~10월) 오전 9시 ~ 오후 6시 / 동절기(11월~3월)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 자격요건: 20대 중반~30대 후반 남,여
 - 재무, 회원정보관리, 소식지출력, 발송 작업, 각종 사무
 - 사업관리
 - * 사회복지: 밑반찬조리, 전화말뼉, 외부시설 봉사관리, 나눔 행사
 - * 환경활동: 숲기행, 환경지킴이, 알뜰장터, 나눔바자회활동
 - 기획: 소식지 편집, 기획, 회원 교류, 각종 행사 지원
 - (1종 운전면허,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 환영)
- 급여: 신입 - 연봉 1,200만, 경력 - 상담 후 결정
- 구비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 서류 접수: clean94@hanmail.net
- 서류 마감: 총원시까지
- * 꼭 불교신도가 아니더라도 법정스님의 글과 말씀을 좋아하고, 존경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며, 불교적 성향이 있고, 사찰기본예절이 있는 분이라면 무관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 수여식
4월 9일 (토) 오후 1시 30분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의 학생이 아

나라도 괜찮습니다. 다소 성적은 뒤처지더라도 착하고, 성실하고, 밝은 심성의 학생 중 너그러워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해야 하는 학생을 회원들과 학교 선생님, 사회 복지사의 추천을 받아 1/4분기 장학금과 이후 학비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장학 대상: 전국 고등학생 (30명 내외)
- 장학 기간: 1년 (4/4분기마다 각 학교 외부 장학금 통장으로 직접 입금됨)
- 장학 내용: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포함한 학비 전액
- 장학생 선정 발표: 2011년 4월 1일(금)
- 장학증서 수여식: 2011년 4월 9일(토)

2011년 서울(수도권) 숲기행 일정 예정 안내입니다.

연초부터 사무국의 여러 가지 사정상, 4월부터 숲기행을 진행할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숲기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5월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숲기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숲기행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숲기행이 진행될 시기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2011년 숲기행 예정지 안내〉

5월 - 안산공원 벚꽃 길

6월 - 남산

7월 - 관악산 무너미고개

8월 - 인왕산 기차바위

9월 - 도봉산 원도봉 계곡 망월사

10월 - 용마산~아차산

11월 - 우이령

올해도 박희준 숲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일정과 시간, 참가자 모집 안내 등은 차후 홈페이지에 다시 공지 하겠습니다. 숲에서, 자연에서, 꽃잎처럼 향기로운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실 전산작업, 전화상담 도움 줄 봉사자를 찾습니다.

평일 오전 또는 오후, 일정한 시간 약속을 정한 후 사무국에 오셔서 전산입력 작업이나 전화상담 또는 작은 도움이라도 주셔서 업무를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고, 또 와서 일을 한다 해도 자리가 잡히고 업무를 익힐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전

화를 받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해주거나 상담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소식지 발송 봉사자 모집

소식지 발송 작업은 매달 초(3-5일) 사이에 이뤄지며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전후로 길상사내 '설법전 또는 소강당'에서 행해집니다.

매월 5,000여부를 발송하며, 평균 1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때론 일손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시간적으로나 힘에 겨워 참여할 수 없었던 분이라면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편히 받아보는 소식지 한 권에는 많은 분들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주시고, 소중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로후원에서 CMS후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사무국 일손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로후원에서 CMS후원으로 변경하면 고급 종이도 버려지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담당자가 일일이 지로후원 내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산오류로 인한 담당자 고충을 덜어 줄 수 있고, 우편 발송작업 봉사자들의 일손을 줄일 수 있으며 또 불필요한 운영경비가 지출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작은 실천이 맑고 향기롭게 마음을 아날까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변경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피빈 - 용이 만드는 행복한 기부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 해피빈을 아시나요? 네이버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검색, 배너를 클릭하다 보면 해피빈쿵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면 100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모아진 쿵을 원하는 기관에 기부할 수 있고요. 쿵 하나는 작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점점 커지겠지요. 맑고 향기롭게 모임도 해피빈 쿵을 기부 받고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모임 네이버 해피빈 주소
<http://happylog.naver.com/clean94.do>

결석이웃을 위한 자원 활동가 모집

멀리 있는 행운보다는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홀로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 2가지 반찬을 지원하고, 매월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쿠폰(3만원권)을 2개월마다 지원하여 대상자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반찬 조리봉사에는 남자봉사자들의 든든한 팔힘이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라 힘이 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혹시 목요일, 금요일 직장을 안 나가는 프리랜서 또는 쉬시는 남자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길상사 주차장 옆 맑고 향기로운 조리장으로 달려와 주시면 매주 20명의 어머니들께서 정말 반갑게 맞이해드릴겁니다.

• 밀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 반 ~

• 밀반찬 배달 자원 활동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이후

‘의류재활용 봉사팀’ 활동 이야기

2011년부터 의류재활용 소품 만들

기 소모임이 리폼에 자원 활동해 주신 회원 분들을 중심으로 <의류재활용 봉사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봉사팀은 여러분께서 기증하여 주신 헌옷이나 자투리천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 알뜰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필요한 시설에 기증도 합니다. 헌 청바지나 헌 남방은 모았다가 서울지부로 기증해 주세요. 안 입어 버리려던 한복도 수집합니다. 양단, 공단으로는 상보나 소품 주머니를 깨끗이도 크고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보려합니다.

진인선원 봉사팀 출발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기존의 '경복궁 건춘문 앞'에서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20분 출발)

4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발송 / 4월 5일(화) / 우편분류 : 3월 28일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 금요일(4월 7, 8, 14, 15, 21, 22, 28, 29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자원활동 / 첫째 일요일(4월 3일)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4월 10일) 오전 8시 20분 /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 활동 / 1, 2, 3, 5주 목요일(4월 7, 14, 21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가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4월 4, 11, 18, 25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4월 6, 20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 활동가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셋째 일요일(4월 10일, 17일) / 오전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정기모임 / 4월 11일(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30분 / 서울모임 사무실
- 국군백제병원(고양시 덕양구)내 법당 점심 조리봉사 / 매월 둘째, 셋째 일요일
- 외부봉사 모듬장 회의 / 4월 27일(매달 넷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서울모임 사무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4월 6, 13, 20, 27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 순으로 만듦) / 소강당 옆 거사림 사무실 / 선착순 7~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소품 만들기는 2011년부터 매주 의류재활용 리폼에 자원 활동해주신 회원 분들을 중심으로 〈의류재활용 봉사팀〉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4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6 / 13 / 20 / 27일(매주 수요일)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6 / 13 / 20 / 27일(매주 수요일)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7 / 14 / 21 / 28일(매주 목요일)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7 / 21일(1, 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 병동 목욕봉사
14 / 28일(2, 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7 / 14 / 21 / 28일(매주 목요일)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1 / 8 / 15 / 22 / 29일(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1 / 8 / 15 / 22 / 29일(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1 / 8 / 15 / 22 / 29일(매주 금요일)

09:30~12:00

- 1일(금) 참선모임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2일(토)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12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9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9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2일(금)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3일(토)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4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주 수요일(4월 20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 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4월 26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4/2, 9, 16, 23, 30일)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4월 7일)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 활동(은비네 외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4월 8일, 22일) / 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4월 1, 8, 15, 22, 29일)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4월 27일)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 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4월 12일(화) 오전 6시 성주사



대구모임(053-753-8883)

4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 매주 수요일(6 / 13 / 20 / 27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
매월 셋째 금요일(15일) 오후7시(예정)
- 롬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 매월 둘째 토요일(9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 19일(화)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향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봉사
 - ▷ 매월 첫째 화요일(5일) 11시부터

금요일(4월 1일, 15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 등을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리시간: 오전 10~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책임기 모임(4월 대상도서: 아름다운 마무리) / 주제: 녹슬지 않는 삶 / 독서지도: 이신(통일사회연구소 소장) / 4월 13일(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사무실 법정기념관



광주모임(062-236-3129)

4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월 1, 3주





여기는 길상사

<길상사 연등접수>

5월 10일(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길상사에서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는 법회를 봉행하며, 길상사 경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지스님의 법문과 길상사에서 마련되는 행사들을 통해 우리들이 참된 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환히 밝힐 연등을 현재 접수 중입니다.

올해도 길상사에 밝혀지는 연등은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불자님들이 성의껏 연등공양을 올리시고 원하시는 발원문을 직접 쓰시면 정성껏 달아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힐 불자님들은 성의껏 동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선물” 접수>

나누는 기쁨 “자비의 선물” 접수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성북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선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접수는 5월 4

일(수)까지 성의껏 생필품(비누, 양말, 식용류, 김 등)을 담아주시거나 성금을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다라니기도 봉행>

길상사에서는 4월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설법전에서 다라니기도를 봉행하오니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4월 주말 선 수련회 안내>

길상사 주말 선 수련회는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해 한 달에 두 번 신참반과 구참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불교를 갓 접하시거나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신참반에, 수련경험이 있거나 참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구참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길상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참반: 매월 셋째 주말 (4.16~17)
- 구참반: 매월 넷째 주말 (4.23~24)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법회 후에는 길상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새신도 교육’이 열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후 1시~2시 30분에 설법전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 프로그램
1주차: 불교란 무엇인가?
2주차: 예불문 공부
3주차: 나를 깨우는 108배
4주차: 생활 속 수행
5주차: 스님과의 대화
- 지도: 포교국장 광우스님

<4월의 길상사 정기법회 및 기도>

- 초하루 3일기도 / 4월 3일(음 3.1)
극락전 10시
- 보름 미타재일기도 / 4월 17일(음 3.15)
극락전 10시
- 지장재일 / 4월 20일(음 3.18) 지장전
10시
- 관음재일 / 4월 26일 (음 3.24) 극락전
10시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다라니기도 / 4월 2일 (토) 8시 반
- 삼천배 기도 / 4월 9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거사림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4월 3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4월 18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4월 11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4월 26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4월 4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중고등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마음을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외로운 이들, 결석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